

몇 년 전부터 저는 교우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궁리해 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얻은 것 중 하나가 '전교우 성경일독'입니다. 교인 모두가 매일 성경의 같은 본문을 읽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매일의 습관을 익힐 수 있다 싶었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중도에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밀어주고 끌어 주면 끝까지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둘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교인들이 서로 나눌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속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마음 맞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가족들이 같은 말씀을 읽으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이 계획을 충실히 따른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미담을 들으면서 저의 예상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우께서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 한 번 완독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한 번 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뻔 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우들은 카톡방을 만들어 매일 묵상을 나누며 일 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적 습관이 그들에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혹은 딸과 성경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눌 수 있는 기쁨도 맛 보았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새로운 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교우 성경일독'은 매 년 반복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매일의 영적 양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실히 따라오지 못한 분들은 새해부터 마음 먹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면 더 좋습니다. 때로 성경의 내용에 대해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성경이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 자녀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정답'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과 고민을 거치면서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충실히 따라 오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완독한 후의 소감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제 소감은 ... 더 읽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회 자료

"우리의 사귀는..." Our Fellowship Is...

속회자료는 주일 설교내용을 중심으로 제작됩니다.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통245)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성경봉독 - 요한일서 1장 전체를 돌아가며 읽습니다.
- 사귀에 대해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0분)

말씀 묵상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다시 읽습니다. (10분)

말씀 나눔 -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1) 교회에서 당신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2)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 대한 소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점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3) 우리 교회가 좀 더 바르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비판자' 혹은 '방관자'가 아니라 '건설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을 찾으십시오?

기도 1) 거룩하고 바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2)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 -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찬송과 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208장 (통246)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연합감리교회 101 (2)

'감리교회'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 감리교회는 1885년에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전파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배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Underwood)입니다.
- 장로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치중했고, 감리교회는 병원과 학교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장로교회가 감리교회보다 훨씬 큰 교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 교세가 자라면서 영어 이름 the Methodist를 한글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영어 이름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규칙교' 혹은 '방법교'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회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the Methodists라는 이름이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살필 감'(監)과 '다스릴 리'(理)를 합친 단어입니다. 감리교회는 행정 구조 상 감독의 지도와 처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공식 이름입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1968년의 통합으로 인해 '연합감리교회'가 공식 이름입니다. 현재 미국 안에는 약 3백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는 연합감리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 우리 교회는 연합감리교회 버지니아 연회 (감독: Sharma Lewis)에 속해 있으며, 알링턴 지방회(감리사: Cathy Abbot)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설교노트

은혜 받은 말씀을 적으셔서 속회 때 나누시면 좋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환영 및 소개의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목회자 또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 '전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 진도는 요한계시록 8-22장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일독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사역한마당'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 들러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전야(24일)에 우리 교회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속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CUMC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 6시 30분(어린이를 위한 예배/본당), 오후 7시 30분(찬양예배/ROC), 오후 8시 30분, 11시(촛불로 드리는 전통예배/본당)
- 성탄 주일(25일) 예배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함께 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립니다. 초청하고 싶은 이웃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탄 감사 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 오늘 예배 후 4시 30분부터 성가대의 총연습이 있고, 이어서 친교실에서 저녁식사를 나눌 것입니다. 성가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일(토요일) 새벽기도회 시간에는 남아공에서 빈민 선교를 하고 계신 장용석 선교사와 강준이 선교사의 간증이 있고 이어서 친교를 나눌 것입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여선교회 사업으로 교우들께서 구입하신 롯데와 H 마트 쿠폰의 판매액이 2만 2천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5%의 리베이트(총 1,100달러)를 남아공 선교 헌금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연중으로 계속됩니다(문의: 이명숙).
- 앤드 슈사쿠의 <침묵> 추가 주문량이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도서부에 싸인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권당 20달러).
- 2017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속장님들을 통해 가정 당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속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5달러에 구입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행사

- 12월 26일(월)-29일(목) 청소년 연합수양회 및 버지니아 아시아계 목회자 가족 수양회
- 12월 31일(토) 송구영신예배 (저녁 8시)
- 1월 2일(월)-14일(토)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중보기도 제목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도미니칸 리퍼블릭(전구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새로 부임하신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배와 성경공부 안내

예배 안내

주일 예배

한어권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20분 / 208호

Youth & EM
주일 오후 2시 / ROC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본당 / 213-215호

새벽 기도회 및 중보 기도회

(토)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찬양 새벽 예배

(매달 마지막 토) 오전 6시 / 본당

12월 성경일독 진도

18일 (주일)	19일 (월)	20일 (화)	21일 (수)	22일 (목)	23일 (금)	24일 (토)
요한계시록 8-9장	요한계시록 10-11장	요한계시록 12-13장	요한계시록 14-16장	요한계시록 17-18장	요한계시록 19-20장	요한계시록 21-22장

주일 섬김과 봉사

- 예배: 공효선/오하나/김은숙/조정호/김인애
- 바나바: 이환섭/장기만/이수진/고연정
- 멀타: 이백호/윤석호/김애린/김원희/오양우/이유경
- 주차: 장호범/김홍중/김성식
- 도사: 허옥신/김용규
- 성찬사: 류수연

성경 공부

1. 제자반

성경일독반
(인도: 김영봉 목사)
수요일 / 저녁 7시 30분 / 213-215호

여성을 위한 성경필사나눔반
(인도: 도현주 사모) 2월까지 쉽니다.
목요일 / 아침 10시 / 담임목사택

12월 봉사 안내

- 안내와 헌금: 주준호/주규리
- 12월 25일: 회중 기도: Danny Chung
성경 봉독: 정현정
- 주일 친교: (오늘) 4속(속장 공효선)
(다음 주) 여선교회

주일 출석과 헌금 통계 (12월 11일)

한어 예배 (KM)	156	주일헌금	\$227
영어 예배 (EM)	11	교회학교	\$85
청소년 예배 (Youth)	28	주정/월정	\$1,825
교회학교 (Sunday School)	19	십일조	\$5,153
		감사헌금	\$350
		사랑헌금	\$100
		기타	\$1,198
합계:	214명	합계:	\$8,938



6400 Old Centreville Road
Centreville, VA 20121
703 . 939 . 0559
www.kumckoinonia.org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2016년 12월 18일 | 대강절 넷째 주

주일 예배

본당 / 2:30 pm

사회: 김영봉 목사

피아노: 이애령 / 오르간: 김성은

- 전주 Prelude 오르간
-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점화자
- 경배 찬송 “하늘에 계신” 635장 다같이
Hymn of Invocatio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 예배에의 부름 다같이
Call to Worship
- 개회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통245) 다같이
Hymn of Praise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대강절 촛불 점화”
-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정도균
- 성경 봉독 요한일서 1장 1-4절 박철균
Scripture Reading 1 John 1: 1-4
- 찬양 “사랑의 주가 오시도다” 성가대
Anthem
- 설교 “우리의 사귄은...” 김영봉 목사
Sermon Our Fellowship Is...
- 응답의 기도 다같이
Prayer of Reflection
- 헌신 예식 다같이
Dedication Ceremony
- 송영과 봉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장 다같이
Doxology & Offering
- 목회기도 김영봉 목사
Pastoral Prayer
- 결단의 찬양 “내 주의 나라와” 208장 (통246) 다같이
Hymn of Commitment I love Thy Kingdom, Lord
- 축도 김영봉 목사
Benediction
- 인사와 광고 김영봉 목사
Greeting & Announcements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Tithe into the trays in the chapel.